죄악의 1년, 분노의 1년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가 집권한지 1년이 지났다.

그간 남조선은 《검찰공화국》, 《미신공화국》으로 오명을 떨치였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되면서 인간생지옥으로 더더욱 화하였다.

초보적인 상식과 안목도 없는 적폐검찰의 퇴물, 우매함과 저능함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하의 무지몽매한이 《대통령》이랍시고 거들먹거리고있으니 세상을 웃기는 해괴한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횡포한 검찰깡패,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노, 극악한 전쟁대결광, 부정부패의 왕초, 천하의 저능아인 윤석열역도의 1년간 행적을 해부한다.

희대의 정치무능아, 포악한 검찰깡패

남조선 각계에서는 윤석열역도를 《얼결에 〈대통령〉벙거지를 뒤집어쓴 꼭두각시》, 《초보적인 상식과 안목도 없는 적폐검찰의 퇴물》이라고 비난조소하고있다.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과 새 정치를 갈망하는 민심을 악용하여 그리고 보수세력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간신히 권력의 자리에 앉은 역도의 뒤에는 녀편네 김건희와 《천공스승》이 있었다.

무지무능한 윤석열역도가 남조선정치판에 뛰여들게 된것은 다름아닌 김건희와 《천공스승》의 조종에 따른 것이였다.

개별적사람이 미신에 빠지면 머저리가 되지만 권력자가 미신에 환장이 되면 사회와 민생이 망하게 된다.

역도가 《대통령》사무실을 청와대에서 룡산으로 옮긴것도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북악산이 풍기는 《암운》과 지심에서 솟구치는 《불길한 기운》으로 《살기》가 뻗쳤기 때문에 력대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암살당하였고 퇴임후 감옥귀신이 되였으니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미신쟁이의 장사설과 녀편네의 앙탈때문이였다.

이런 꼭두각시여서 녀편네 김건희와 점쟁이가 출근길기자회견을 중지하라면 《소통》이고 뭐고 그만두었고 로동계때문에 집권기반이 불안하다고 하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주로총》도 《내란세력》으로 몰아 탄압을 가하였다.

역도가 미신에 얼마나 넋을 잃었으면 해외에 조문을 가서도 《불길한 기운이 묻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장례식에 참가하지도 않는 《외교참사》까지 빚어냈겠는가.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하고 있을가.》, 《이러다가 사이비 종교로 박근혜를 망하게 한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갓 점쟁이에 의거하는 무골충》이라는 개탄이 절로 나왔고 《권력 1순위는 〈천공스승〉, 2위는 김건희, 3위는 윤석열》이라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다.

《룡산의 새시대》를 광고하며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윤석열도가 해놓은것이란 검찰독재 《정권》을 만든것뿐이다.

아이때부터 《군기반장》이랍시고 쩍하면 학급학생들을 매질하기 좋아했던 《골목대장》, 검사가 되여서도 후배검사가 눈에 거슬린다고 두들겨패고 수사과정에 피의자들을 무시로 끌어다 손찌검으로 토설을 받아낸 깡패검사가 권력을 쥐게 되니 정치는 검찰파쇼깡패정치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들에 검찰출신의 심복들을 박아넣을 때부터 남조선 각계는 《검찰공화국》의 출현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역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수사기능을 부활시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정보원》과 경찰도 자기의 손아귀에 거머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폭압기구들을 틀어쥔 윤석열역도는 반대파숙청과 진보세력말살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야당대표와 야당에 부패의 감투를 씌워 탄압하는가 하면 이전 《정부》출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으며 제놈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국민의 힘》의 대표를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의 심복을 앉히였다. 또한 《국민의 힘》요직들에도 심복들을 앉혀 당을 완전히 사당화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독재 〈정권〉의 상징적인 장면》, 《리승만의 경찰독재, 박정희의 〈유신〉독재, 군부깡패들의 군사독재를 훨씬 릉가하는 검찰독재가 도래하였다.》고 평하였다.

윤석열역도는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반로동, 반인민적정책인 《로동, 년금, 교육》의 《3대개혁》을 반대배격해나선 《민주로총》,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주사파》, 《친북세력》, 《부패로조》의 감투를 씌워 파쇼적폭거를 가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외교적 추태를 보도한 언론들을 《가짜뉴스청산》의 간판을 들고 탄압박해하고있는가 하면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대국민심리전》을 벌리겠다고 포고까지 하였다.

윤석열역도의 이러한 검찰깡패정치로 남조선은 《검찰공화국》, 검찰파쇼독재의 란무장으로 화하였다.

특등사대매국노, 전무후무한 대결미치광이

윤석열역도는 중학교때부터 다른 공부는 죽도록 싫어하면서도 유독 《미국식자유민주주의》를 배우겠다고 하며 미국학자들이 쓴 《선택할 자유》, 《자유론》을 자주 읽었다고 한다.

이렇게 잔뼈가 굳기 전부터 숭미, 친미에 환장이 된자이기에 집권하자마자 서울 룡산의 《국방부》청사를 백악관건물인 《웨스트 윙》을 그대로 모방하여 《대통령》사무실로 개조하고 수석비서관명칭도 미국처럼 보좌관으로 바꾸며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체계도 미국식 사법성인사검증체계로 바꾸려고 설쳐댔다.

그리고 《대통령》자리에 앉기 바쁘게 미국상전을 서울에 끌어들여 아부하며 《한미동맹》강화를 애걸하였다.

윤석열역도는 미국이 《싸드》기지운영을 정상화하라고 하면 내외의 반대배격을 무릅쓰고 상전의 지시대로 강행하고 군비를 증강하라고 하면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였으며 주변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안보동맹》에 들러고 하면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 《칩4동맹》 등에 무작정 가담하면서 《신랭전돌격대》, 《종미나팔수》 노릇을 하였다.

역도가 얼마나 추악한 친미노복인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비롯하여 제놈의 안방을 도청한데 대해서 《악의적인 행위는 아니다.》, 《〈한미정보동맹〉강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는 넉두리를 늘어놓으며 상전을 극구 변호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윤석열역도는 천년숙적인 섬나라것들에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통채로 섬겨바치는 친일사대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일관계악화는 일본사회의 우경화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일정책때문이다.》,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한〉미일군사동맹도 가능하며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조선반도에 들어올수도 있다.》…

윤석열역도는 《대통령》선거기간에 내뱉은 이 친일망발들을 충실히 실행해가고있다.

일본《자위대》무력을 조선동해, 남해에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리였는가 하면 섬나라것들이 독도강탈야망을 로골화하는데 대해서는 《항의》라는 외마디로 굼때면서 일본이 군국주의침략자에서 《협력동반자》로 변했다고 떠벌이는 얼간이짓도 하였다.

얼마전 섬나라에 갔을 때에는 천년숙적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과거죄악을 무마해주는 등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거리낌없이 짓밟고도 오히려 자기가 《대승적결단》을 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수상 기시다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협력을 한발자국도 내디딜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사문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넉두리를 늘어놓으며 일제의 과거죄악을 백지화해주고 공화국을 겨냥한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의 조속한 완성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모의를 벌리였다.

윤석열역도는 이처럼 외세에게는 아부굴종하는 반면에 공화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였다.

최근에 미국행각을 하면서도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워싱톤선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하여 온 남조선땅을 미국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더욱 철저히 전략시키겠다는것을 공식화하였다.

참으로 윤석열역도야말로 민족의 피와 넋이라고는 털끌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특등사대매국노, 희세의 대결광신자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퇴진하라!

《한마디로 실망과 탄식의 련속이였다.》

이것이 윤석열역도의 집권 1년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총평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로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윤석열〈정부〉 1년평가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내린 평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아무것도 안해서 평가할게 없다.》와 《역행, 퇴행, 폭주》이다.

《경제정책》은 《재벌특혜, 부자감세》, 《복지정책》은 《공공성확대라는 시대적요구에 역행》, 《로동정책》은 《극단적인 반로동, 로조탄압정책》, 《농업정책》은 《농민말살, 농업포기, 국민을 굶겨죽이는 정책》, 대외관계는 《힘을 통한 조선반도문제해결시도와 전쟁위기심화, 배타적인 미국편승과 대일굴욕외교》…

남조선민심은 이렇게 역도의 집권 1년을 총화하고 있다.

오죽하면 보수세력내에서도 《새 〈정부〉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낀다. 윤석열〈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을 거의 상실했다. 국민은 〈공정의 리념이 넘실거리는 세상〉을 기대했지만 윤석열〈정부〉는 또 다른 기득권세력으로 서서히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는 비난이 울려나오고있겠는가.

사대매국과 파쇼, 반인민적악정과 극악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남조선을 파쇼암흑사회, 인간생지옥, 인권폐허지대로 만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그 저주, 그 분노가 《윤석열퇴진》, 《윤석열탄핵》투쟁으로 폭발하고있다.

《더이상은 안된다. 퇴진이 답이다.》

역도의 집권 1년을 맞으며 남조선민심이 내린 결론이고 선고이다.

천하역적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라설 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나는 무엇인가?

—한 남조선로동자가 터뜨린 절규—

나는 무엇인가?
사는것이 차라리 죽는것보다 못한
피땀을 빨리고도 짓밟혀야 하는 땅
어떻게 하나 버텨보자 이를 악물어도
그 강심마저 멸시에 우롱당하는
이 지옥같은 사회에서 나는 무엇인가?

뜨거운 석탄슬라크 뒤집어쓴채로
한마디 비명조차 못지르고 간 로동자들
그들앞에서 갈가리 찢어지던 가슴
벨트콘베아에 몸이 끼여 죽어간
25살 그 애젊은 나이가 너무 기가 막혀
령전에 꽃놓으며 목놓아 울때
아, 물었다 로동자 나는 무엇인가?

떨어져죽고 깔리워죽어도
과로로 숨이 지고 불에 타 횡사해도
죽인자는 어디 있고 원인은 또 뭐냐
물어도 물어도 대답없는 더러운 사회가
침묵으로 싸늘하게 내뱉고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그것이 곧 죄이다

생을 갉아먹는 잔인한 로동시간앞에
목숨을 앗아가는 처절한 재해앞에
억울하고 분하다 아무리 가슴쳐도
로동자가 인간으로 살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저주로운 땅은

더이상 죽이지 말라!
이대로는 더는 못살겠다!
울분과 절규마저 죄악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은 무서운 살인자!
그 횡포한 《정부》와 《법》이
눈뜨고 살아있는 이것이 분통하다

섬뜩한 해고의 바람에 휘청거리는
렬악한 현장의 먹이감으로 되여버리는
죽음을 당한 동료들앞에
왈칵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그것이 로동자
이 치욕을 그대로 참으랴

나는 무엇인가?
짓눌려사는 로동자 내가 묻고
불쌍한 아이들과 안해들이 묻는다
무엇을 서슴고 주저한단 말이냐
로동자 나는 분노의 불이다
용납 못할 사회에 맞선 항거의 퇴성이다

시론

천년숙적과의 《미래지향》은 매국배족적인 과거지향

과거는 고칠수 없지만 미래는 바로잡을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과거를 거울로 삼아 옳바른 미래에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왜나라것들은 조선강점기간 100여만명의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과 침략전쟁에 내몰았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일본군성노예생활을 강요한것 등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오늘까지 진심어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도리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인의 치를 떨게 하는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섬나라것들이 죄악의 과거를 한사코 부인하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는것은 피로 얼룩진 과거를 되살리려는 흉심의 산물이다.

현실적으로 섬나라것들은 죄악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는 력사외곡책동과 함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군사대국화와 재침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현 일본수상 기시다만 보아도 주요계기때마다 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쟈에 공물봉납놀음을 벌리고 강제징용과 일본군성노예를 비롯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반공화국 압살책동과 미일남조선《3각군사동맹》 구축책동에 날뛰고있다.

하기에 세인은 섬나라것들을 전범국, 정치난쟁이, 무뢰한, 21세기 야만국이라고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는 《100년전에 일어난 일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수 없다.》느니,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관계에 대해 한걸음도 내디디여선 안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며 왜나라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가 하면 섬나라것들과 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기도를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천하역적, 사대매국을 생리로 하는 추악한 반역아의 망동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피와 넋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극악한 사대매국노이기에 역도는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섬나라것들에게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서울에 오기 바란다.》고 하면서 일본수상 기시다를 비롯한 왜나라것들이 민족의 존엄을 밟고 남조선을 행각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독도강탈야망과 핵오염수방류기도를 로골화하는 섬나라것들과 입을 맞추며 돌아갔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매국행태를 두고 《윤석열덕분에 남조선은 일본의 안보를 위해 총대메고 방사능오염물질방류, 일본군성노예문제, 독도침략문제를 눈감아주는 일만 남았다.》, 《일본에 강제징용되여 생긴 피해를 우리 기업들 돈으로 보상한다는게 제정신인가. 통탄스럽다!》, 《저런 력사인식을 가진 매국노를 찍다니,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강제퇴출이 정답이다.》라고 울분과 격분을 터뜨리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가 섬나라것들의 가랭이를 불잡고 가겠다는 《미래》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분명하다.

그 《미래》란 군국주의해외침략야욕에 들떠있는 섬나라의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여 남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다시 내맡기려는 《미래》이다.

그 《미래》는 또한 미국, 일본과 군사적으로 결탁하여 공화국을 침략하고 이 땅을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미래》이다.

그것은 철두철미 조선민족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바다건너 왜나라를 위한 암흑의 《미래》이다.

그것은 사실상 《미래》라는 현란한 보자기를 씌운 치욕과 수난의 과거에로 돌아가자는 《미래》이다.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때문에 섬나라것들이 《히노마루》와 《욱일기》를 휘날리며 남조선에 군화발을 들여놓는것도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성으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을 할애비로 섬기고 섬나라것들에게 쓸개도 간도 다 떼주는 윤석열역도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재앙덩어리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송두리채 팔아먹고있는 만고역적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강 영 진

대결광의 판에 박은 《북인권》 타령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 권녕세가 입만 벌리면 황당한 《북인권》타령을 늘어놓고있다.

이자는 얼마전에도 그 무슨 《학술회의》라는데서 《북주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있다.》느니, 《인도주의적상황개선》을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이라느니 하고 희떠운 나발을 불어댔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위상과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에 먹칠을 해보려는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이 인민의 존엄과 자주적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라는것은 건전한 리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인하는 사실이다.

하늘도 감복할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에 의해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선경거리, 번화가들과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현대문명이 응축된 이 희한한 보금자리들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입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웨치고있는 사실만 놓고보더라도 공화국은 참다운 인민의 세상, 인민이 주인된 사회라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다.

그런데 이 엄연한 현실을 지척에서 보고 듣으면서도 《북주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있다.》느니, 《인도주의적상황개선》이니 하는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있는 권녕세야말로 귀달린 벙어리, 눈뜬 소경이며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적대감에 환장이 되여 초보적인 분별력마저 마비된 인간추물, 대결미치광이이다.

근로대중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히고있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는 다름아닌 권녕세를 비롯한 인간쓰레기들이 서식하고있는 남조선이다.

남조선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는 자기 집을 마련하는것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한갓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제 집이 없어 세방살이를 하거나 판자, 비닐, 지함들로 만든 집 아닌 집들에서 설음의 눈물을 흘리고있다. 그런 거처지마저 없어서 거리와 골목, 지하도에서 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보내고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청년문제를 놓고도 인권불모지인 남조선의 실상을 잘 알수 있다.

《청춘은 푸른빛이 아니라 피빛이다. 가냘픈 손목에 칼을 그었다. 붉은 피방울로 한글자 한글자 썼다. 〈내 돈 내놔!〉》

이것은 뼈빠지게 일하고도 받지 못한 밀린 임금때문에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조선의 한 청년이 쓴 글이다.

남조선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20년 자살자수는 1만 3 195명이며 특히 청소년자살률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청소년들속에서 자살자수가 날마다 늘어나고있는것은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때문이다.

지금 윤석열역도는 《로동, 년금, 교육》의 《3대개혁》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것》이라고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러나 친재벌, 친기업적인 《로동개혁》으로 로동자들은 장시간의 살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고 언제 실업자로 될지 모를 운명에 처하게 되였고 이것은 로동시장의 주역인 20대, 30대청년층의 삶을 더욱 막바지로 몰아가고있다.

《교육개혁》이라는것도 교육분야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등록금대란》을 불러오고있다.

결국 윤석열역도의 《로동개혁》, 《교육개혁》은 청년들에게 꿈이 아니라 절망만을 안겨주고있다.

하기에 지옥같은 사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는 악정만을 추구하는자들을 저주하며 죽음을 택하는 청년들의 수가 날로 늘어만 가는것이다.

이것이 어찌 청년들만의 운명이겠는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경제는 아프고 민생은 슬프다.》, 《윤석열취임 지옥같은 1년이였다.》, 《물가 하나만 보아도 지난 1년은 끔찍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역도의 횡포한 검찰깡패정치, 반인민적악정의 1년으로 더욱 참혹해진 삶을 비관하며 남조선민심은 이렇게 준렬히 성토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자는 제 땅의 참혹한 인권실상에는 눈을 감고 주제넘게도 있지도 않는 《북인권》에 대해 쉴새없이 주절대고있다.

황당한 《북인권》타령으로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말살하고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리석은 기도의 발로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빛을 가리울수 없듯이 권녕세와 같은 인간추물들, 대결광들이 아무리 요설을 늘어놓아도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의 진모습을 흐리게 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 명 진